

## 1920년대 중국여성문학과 매체

金 垠 希\*

1. 머리말
2. 1920년대의 여성운동
3. 여성운동과 매체
4. 여성운동과 여성소설
5. 맺음말

### 초록

1920년대의 여성운동은 아편전쟁 이후 쌓아온 여성운동의 성과 위에서 전개되었다. 이 시기의 여성운동은 대체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면에서의 여성의 권익을 쟁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여성노동자와의 연대를 모색하였는데, 1920년대 초 여성작가의 대거 등단은 바로 이 같은 여성운동의 성과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五·四運動 이후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는 잡지들은 상이한 정치적 성향을 보이면서 다양한 여성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여성운동의 성격을 볼 때 크게 개량주의적 여권운동과 혁명적 여권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가 부르주아 지식 여성을 중심으로 남성과 동등한 권익을 요구하였음에 반해, 후자는 프롤레타리아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 체제의 변화를 통해 여성 억압적 사회구조를 타파하고자 하였다. 五·四運動 직후에 쓰여진 글에서는 전자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였던 반면, 1922·23년에 접어들어 후자와 관련된 논의가 증가하였다. 이는 변혁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그 성격이 보다 명확해지고, 아울러 여성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이 보다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잡지의 출판성격, 출판지 및 기고자를 살펴보면, 五·四運動 전후에 출판된 잡지는 종합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북경을 비롯한

\* 전북대 동양어문학부 조교수

대도시에서 남성 필진을 중심으로 간행되었다. 반면 1921년 전후에 출판된 잡지는 여성문제 전문지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上海와 廣州를 중심으로 여성 필진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는 사회문제의 일부로서 제기되었던 여성문제가 점차 독립적인 분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여성문제가 점차 변혁운동과 결합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 1. 머리말

중국의 女性運動은 중국의 역사적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反帝·反封建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어 왔다. 이는 제국주의열강의 침입과 더불어 시작된 변혁운동의 이념적 지향에 의해 女性問題가 인식되고 해결방안이 제기되어왔다는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중국의 女性運動은 1840년부터 胚胎되어 戊戌維新에 이르러 제1차 고조기를 맞이하고, 20세기 초부르조아 지식인의 출현과 민주사상의 전파를 배경으로 辛亥革命전후에 제2차 고조기를 맞이하였으며, 五·四運動期에 제3차 고조기를 맞이하였다.<sup>1)</sup> 여기에서는 五·四新文化運動期로부터 大革命期까지의 여성운동의 전개를 중심으로 대중매체 및 여성작가의 창작성과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중매체의 경우 1920년대 중국의 일반 대중에게 가장 영향력 있었던 매체인 신문과 잡지를 살펴보고, 여성소설의 경우 역시 여성작가에 의해 씌어진, 여성 억압적 현상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한정한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먼저 여성운동의 전개과정을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여성문제를 제기하였던 매체의 성격과 논의범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소설의 내용과 그 한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呂美頤·鄭永福, 『中國婦女運動(1840~1921)』(河南: 河南人民出版社, 1990), p.15.

## 2. 1920년대의 여성운동

辛亥革命的 성과를 袁世凱에게 빼앗긴 이후 尊孔復古의 역류가 노골화되는 가운데, 袁世凱는 전제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는 혁명세력을 진압하고 사상적으로는 봉건이데올로기를 재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1913년 6월 「존공성문에 대한 훈령(通令尊孔聖文)」을 공포하여 孔子를 '萬世의 師表'로 추송하고 그의 학설을 '은 세상의 표준'으로 떠받들었으며, 1913년 10월에는 大總統에 정식 취임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중화민국 임시약법(中華民國臨時約法)」을 폐지하였다. 尊孔復古의 역류 속에서 가장 심한 고통을 받은 이는 물론 여성이었다. 1913년 11월 女子參政同盟會가 해산되었으며, 1914년 3월에 공포된 「치안경찰조례(治安警察條例)」에 의해 여성은 “정치결사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집회에 가입해서도 안 된다”<sup>2)</sup>고 규정되었다. 1915년에는 「국민학교령(國民學校令)」이 공포되어 소학교 1, 2학년은 남녀를 合班할 수 있지만, 3학년 이상은 共學은 가능하지만 合班은 안 된다고 규정하여 1912년의 학제보다 오히려 후퇴하였다. 또한 袁世凱가 죽은 후인 1917년 臨時中華民國 副總統인 馮國璋은 「포상조례 수정안(修正褒揚條例)」을 공포하여 ‘節’ ‘烈’ 관념을 주입하려 하였으며, 교육당국은 1917년 「여학교 단속규칙(女學取締之規則)」을 제정하여 여학생의 剪髮과 自由結婚을 금지함으로써 여학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이 같은 반동적 복고주의에 맞서 新文化運動을 열었던 것은 1915년 9월에 창간된 『青年雜誌』(第二卷 一號부터 『新青年』으로 改名)이었다. 초기 新文化運動을 이끌었던 『新青年』은 ‘民主’와 ‘科學’을 제창하여 사상계몽운동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女性問題에도 관심을 기울여 여성 억압적 봉건이데올로기를 공격·비판하였다. 특히 『新青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던 女性問題는 봉건적 貞操觀念이었는데, 周作人の 「정조를

2) 위의 책, p.275에서 재인용

논함(貞操論)」과 胡適의 「정조문제(貞操問題)」와 「정조문제를 논함(論貞操問題)」, 魯迅의 「나의 절열관(我之節烈觀)」 등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조문제를 둘러싼 토론을 계기로 女性問題와 관련된 사회 문제, 즉 교육의 평등, 결혼의 자유, 사교의 자유와 권리, 경제독립, 창기 폐지, 노비해방 등등이 제기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러한 女性問題의 제기가 남녀의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지 않고 여성의 인격독립을 강조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女性問題의 실질은 결국 여성의 독립된 인격을 인정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으며, 여성의 인격독립을 기반으로 女性問題가 논의되었던 것이다.

五·四以前 初期 新文化運動期の 女性問題에 대한 인식은 五·四運動을 통해 질적 비약을 이루게 되었다. 北京과 天津, 上海 등의 대도시의 여학생들은 조직적으로 동맹휴업 및 가두시위를 전개하였으며, 특히 上海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했던 일은 女性運動史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五·四運動에서 보여주었던 여성의 적극적인 참가는 수량과 질량 면에서 이전 시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는 바, 女性運動이 정치투쟁과 결합하였다는 점은 이후의 女性運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五·四運動 직후의 女性運動은 사상해방의 흐름 속에서 남녀평등의 구호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의 女性運動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정치·경제·교육면에서의 권리 등을 광범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크게 대학에서의 女禁 開放, 남녀사교의 공개, 결혼의 자유, 그리고 여성참정권 등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먼저 대학의 女禁 開放問題는 교육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를 통해 그동안 여성교육을 둘러싼 女性運動의 성과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일반대학에서는 여학생의 입학에 허용하지 않았으며, 여자대학은 교회가 설립한 南京의 金陵女子大學과 福州의 華南女子大學, 北京의 華北女子協和大學 3곳뿐이었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교육내용이나 교육목표는 봉건체제가 농후할 뿐만 아니라 현모양처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대학에 여학생 입학을 허용하라는 요구가 고조되는

가운데, 1919년 5월 19일 鄧春蘭이 北京大學 總長인 蔡元培에게 입학허용을 청원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이 편지는 곧이어 北京과 上海의 신문에 실려 여학생 입학허용을 둘러싼 토론이 전개되었다.<sup>3)</sup> 1919년 말과 1920년 초에 여학생 입학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거세어지는 가운데, 1920년 봄 北京大學은 최초로 9명의 여학생<sup>4)</sup>을 文科의 傍聽生으로 받아들였다. 北京大學의 조치에 뒤이어 각지의 公私立大學이 여학생의 입학허용하였으며, 중학에서도 남녀공학이 실시되게 되었다. 대학과 중학에서의 남녀교육의 평등과 기회확대<sup>5)</sup>는 여성의 경제독립과 직업평등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男女社交의 공개의 문제는 ‘男女有別’을 엄격히 강제하는 봉건이데올로기에서 본다면 국민도덕의 타락을 빚어낼 우려가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沈雁氷의 「남녀사교의 공개문제에 대한 소견(男女社交公開問題管見)」<sup>6)</sup>과 「남녀사교 문제를 다시 논함(再論男女社交問題)」<sup>7)</sup>이라는 글 외에도 남녀사교의 공개에 관한 글<sup>8)</sup>들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五·四運動 중에 전개되었던 남녀연합조직과 운동은 男女社交의 공개의 정당성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의 자유문제는 女性運動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문제로서, 남녀 결혼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토론의 초점이 되었다. 이를 둘러싸고 1920년 『婦女雜誌』 第六卷 二號(1920년 6월 5일)에서는 ‘결혼의

3) 北京의 『晨報』와 上海의 『民國日報』에 실렸으며, 『少年中國』 第一卷 四號의 ‘婦女號’(1919.10)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4) 9명의 여학생은 王蘭, 奚貞, 查曉園, 鄧春蘭, 韓恂華, 趙懋蒼, 趙懋華, 楊壽壁, 程茗勤이다.

5) 中華教育改進社의 1923년 調查統計에 의하면, 여학생의 학생총수에 대한 비율은 大學 및 專門學校에서 2.42%, 師範學校에서 17.56%, 師範講習所에서 7.16%, 中學校에서 3.14%, 甲種實業學校에서 7.13%, 乙種實業學校에서 8.52%, 高等小學校에서 6.4%, 國民學校에서 6.33%이며, 전체 학생수에서의 여학생의 비율은 6.31%에 이르고 있다. 呂美頤·鄭永福, 앞의 책, p.323.

6) 『婦女雜誌』 第六卷 二號(1920.2.5).

7) 『婦女評論』 第九期(1921.9.28).

8) 『婦女評論』 第七期(1921.9.14)는 ‘男女社交問題 專號’였으며, 이밖에도 北京 『晨報』 『覺悟』 등에서도 ‘男女社交問題’를 다루고 있다.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특집호를 발간하였으며, 결혼의 자유를 선전하는 희극도 크게 유행하였다.<sup>9)</sup> 결혼의 자유를 둘러싼 토론은 이혼과 재혼의 자유, 불합리한 혼인의 부정, 편면적인 정조관념의 부정 및 구가정의 개조 등의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五·四運動 이후 여성참정권 문제는 民國初期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제2차 고조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의 여성참정권운동은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 그리고 당시 省自治와 聯省自治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20년 후반 일부 성의 지방군벌은 直系軍閥의 무력통일의 기도를 막기 위해 省自治와 聯省自治를 부르짖으며 省憲法의 제정과 制憲委員會의 구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湖南, 廣東, 四川, 浙江, 江西 등의 각지에서 여성참정단체를 결성하여<sup>10)</sup> 청원의 형식을 빌어 법률상의 남녀평등을 실현시키려 하였지만,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계급적 편견 때문에 조직상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sup>11)</sup>

이러한 문제 외에도 이 시기에는 남녀의 인권평등이란 관점에서 남녀의 직업평등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기초로서 중시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工讀互助團, 留法勤工儉學運動, 각종 직업학교의 설립, 女子合資의 상공업·은행 및 공장의 설립 등이 시도되었다. 또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女性問題로서 娼妓廢除와 婢女廢除가 논의되었으며, 여성해방과 여성보호라는 측면에서 산아제한과 여성의 避妊이 언급되었다. 이밖에도 여성의 纏足廢止와 사치장식 금지, 剪髮 등 광범한 女性問

9) 입센의 「傀儡之家」를 비롯하여 중국의 古典悲劇인 「孔雀東南飛」, 胡適의 新編話劇 「終身大事」 「不如歸」 「幽蘭女士」 「童女自由」 등이 공연되었다.

10) 여성참정권운동을 주도하였던 조직으로 크게 女界聯合會, 女子參政協進會, 女權運動同盟會를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는 1919년 중반부터 1922년 중반에 걸쳐 각지에 지회 혹은 분회를 설립하여 여성의 참정권 획득과 남녀의 완전한 평등을 위해 투쟁하였다.

11) 中國全國婦女聯合會 編, 박지훈 의 역, 『中國女性運動史(上)』(한국여성개발원, 1991), p.163 참조

題가 제기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女性問題를 해결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각종 주의와 학설, 사상유파에 근거한 적극적 모색이 다양한 견해로서 제기되었다. 즉 경제적 독립을 여성해방의 관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교육이 선결조건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또한 여성의 참정권확보를 여성해방과 女性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선결조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우선적으로 여성의 미신도덕을 타파하여 사상혁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심리의 개조를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이외에도 戀愛至上主義派, 産兒制限主義派, 家庭改造派 등등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었다.

五·四運動 전후의 女性運動은 대체로 여성의 독립인격과 남녀평등이라는 틀 속에서 봉건적 도덕관념에 반대하여 여성의 권익 찾기의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女性問題가 사회문제의 주요 부분으로서 거의 모든 간행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시기의 女性運動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포용하지 못한 채 名望家 중심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女性問題에 대한 명확한 이념적 지향점을 갖지 못한 채 당위적인 수준이나 상황의 요구에 따른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한계로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새로운 女性運動論이 요구되었으며, 이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女性運動論이 적극적으로 소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 10월 혁명 직후 프롤레타리아혁명론을 소개했던李大釗은 「여성해방과 민주주의(婦女解放與Democracy)」<sup>12)</sup>에서 여성해방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李達은 「여성해방을 논함(女子解放論)」<sup>13)</sup>에서 女性問題를 경제제도 및 사회제도 면에서 분석하였다. 女性問題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은 사회주의만이 중국문제

12) 『少年中國』第一卷 四號(1919.10).

13) 『解放與改造』第一卷 三號(1919.10).

와 함께 女性問題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논점<sup>14)</sup>과 女性運動의 중심이 ‘第三階級’에서 ‘第四階級’인 여성노동자로 옮겨져야 한다는 논점<sup>15)</sup>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소련여성의 실태를 소개하는 글과 마르크스주의의 女性運動論의 번역서들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마르크스주의 女性運動論에 대한 관심은 1921년 中國共產黨이 창립됨으로써 조직적 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中國共產黨은 제1차 全國代表大會에서 女性問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못하였지만, 上海의 진보적 여성단체인 中華女界聯合會를 개편하여 女性運動에 대한 기본주장을 밝혔다. 이어 1922년 7월에 개최된 제2차 全國代表大會에서 「여성운동에 관한 결의안(關於婦女運動的決議)」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서 여성을 속박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고 여성이 정치·경제·사회·교육상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을 선언적 형식으로 공포하였다.<sup>16)</sup> 中國共產黨은 제1차 全國代表大會 이후 女性運動에 직접 뛰어들어 1921년 12월 『婦女聲』 半月刊을 창간하여 이를 통해 女性運動에 대한 당의 방침과 정책을 선전하였으며, 1922년 2월에는 上海平民女學校를 설립하여 女性運動의 인재를 양성하였다.

1923년 6월에 개최된 中國共產黨 제3차 全國代表大會는 「노동운동결의안(勞動運動決議案)」과 「여성운동결의안(婦女運動決議案)」을 통과시켰다. 특히 「여성운동결의안(婦女運動決議案)」에서는 國共合作의 분위기에 따라 일반부녀운동과 여권운동, 참정운동,廢娼運動 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들 아가씨와 부인 혹은 여정객들의 운동을 경시해서는 안되며, 계급적 주의의 색채를 지나치게 짙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

14) 대표적인 글로는 沈雁氷의 「家庭改制的研究」(『民鐸』第二卷 四號, 1921.1.15)와 陳獨秀의 「婦女問題與社會主義」(『廣東群報』, 1921.1.31)를 들 수 있다.

15) 대표적인 글로는 田漢의 「第四等級的婦人運動」(『少年中國』第一卷 四號, 1919.10)과 陳望道の 「我想(二)」(『新婦女』第四卷 四號, 1920.11.15), 王劍虹의 「女權運動的中心應移到第四階級」(『婦女聲』第一期, 1921.12.10)을 들 수 있다.

16) 中華全國婦女聯合會 婦女運動歷史研究室 編, 『中國婦女運動歷史資料(1921~1927)』(北京:人民出版社, 1986), pp.29~31 참조



주어서는 안 된다”<sup>17)</sup>고 밝혔다. 1924년 1월에 개최된 國民黨 제1차 全國代表大會에서는 법률·경제·교육·사회적 남녀평등의 원칙을 확인하고 여권의 발전을 도와야 한다는 제안이 통과되어 「제1차 전국대표대회선언(一全大會宣言)」에 삽입되었다. 國共合作 이후 女性運動을 활성화하기 위해 國民黨 중앙집행위원회에 中央婦女部가 설립되었으며, 上海·北京·漢口の 특별구 집행부와 각급 당부에도 婦女部가 설립되었다. 國共合作期の 여성연합조직인 中央婦女部는 1924년 10월 산하에 女性運動委員會를 설치하는 한편, 宣傳部和 調查部를 두고 여성선전학교의 설립, 간행물의 출판, 전국 여성단체와의 연계 등을 계획하였다. 國民黨 中央婦女部는 女性運動을 이끄는 가운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1924년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갖기도 하였다.

國共合作의 결성은 婦女部를 중심으로 한 조직역량뿐만 아니라, 각지의 여성노동자와 농촌여성의 조직화와 여권운동의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25년에 上海에서 발생한 五·三十 反帝鬪爭은 女性運動에서의 여성노동자의 역량과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五·三十 反帝鬪爭에 호응하여 일어난 香港·廣州大罷業에서도 여성노동자는 투쟁의 선두에 서서 파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女性運動의 역량이 강화되는 가운데 1926년 1월 1일 개최된 國民黨 제2차 全國代表大會에서는 「여성운동결의안(婦女運動決議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서는 법률 및 행정 면에서의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한편, 여성대중을 국민혁명에 참가하도록 함과 동시에 여성의 해방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sup>18)</sup> 이어 1926년 7월에 개최된 中國共產黨 제4기 中央執行委員會 제3차 全體擴大會議에서도 「여성운동결의안(婦女運動決議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서는 여성노동자가 女性運動의 핵심임을 천명하면서도 각종 파벌의 여성과의 연합전선 결성을 중시하였다.<sup>19)</sup>

17) 위의 책, p.68.

18) 위의 책, pp.505~507 참조

19) 위의 책, pp.475~477 참조

1926년 7월 9일 정식으로 개시된 北伐戰爭期동안 女性運動의 역량은 北伐戰爭의 적극적인 지원에 집중되었다. 國民黨 中央婦女部는 女子北伐 救護隊와 宣傳隊를 조직하여 北伐軍을 뒤따라 북상하였으며, 廣西省의 黨部婦女部 역시 女子北伐隊를 조직하여 선전과 간호, 위로 등 여러 가지 공작을 담당하였다. 1927년 5월 北伐軍이 파죽지세로 북상할 즈음, 北伐赤十字會가 결성되고 前方救護隊와 後方病院이 조직되어 부상당한 군인을 지원하였다. 이 같은 지원 외에도 上海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1927년 3월 제3차 무장봉기에 참가하여 봉기를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다. 그러나 1927년 四·一二政變으로 인하여 國共合作이 분열됨으로써, 女性運動조직의 와해와 함께 女性運動은 침체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 3. 여성운동과 매체

이러한 女性運動의 흐름속에 따라 女性問題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더욱 폭넓고 깊어졌다. 이 점은 五·四新文化運動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新青年』과 기타 간행물에서 女性問題를 언급한 글의 편수를 살펴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新青年』의 경우 女性問題를 다룬 글을 대표적으로 몇가지 든다면, 陳獨秀의 「공자의 도와 현대생활(孔子之道與現代生活)」과 吳虞의 「가족제도가 전제주의의 근거가 됨을 논함(家族制度爲專制主義之根據論)」, 吳曾蘭의 「여권평의(女權平議)」, 陶履恭의 「여자문제(女子問題)」, 周作人이 번역한 「정조를 논함(貞操論)」, 胡適의 「정조문제(貞操問題)」, 魯迅의 「나의 절열관(我之節烈觀)」, 李大釗의 「전후의 부녀문제(戰後之婦人問題)」 등 약 40여 편에 달한다.

『新青年』 외에도 女性問題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婦女雜誌』 『新婦女』 『勞動與婦女』 『婦女聲』 『婦女評論』 『婦女週報』 등의 女性問題 전문지<sup>20)</sup>는 물론, 『每週評論』 『湘江評論』 『覺悟』 『新潮』 『少年中國』 『少年世界』 『星期日』 『星期評論』 『晨報』 등의 간행물에서도 거의 매호 女性問題

와 관련된 글이나 기사를 실고 있다. 女性問題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이들 간행물의 ‘女性問題 특집호’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는데, 『婦女評論』의 경우 ‘婦女經濟問題 討論號’(3호, 1921.8.17), ‘男女社交問題 討論號’(7호, 1921.9.14), ‘女子地位問題 討論號’(26호, 1922.2.1), ‘産兒制限 討論號’(39호 및 40호, 1922.5.3 및 5.10), ‘自由離婚號’(57호, 1922.9.6) 등을 발간하였다. 또한 『少年中國』의 제1권 4호(1919.10)는 ‘婦女號’로서 女性問題에 관한 19편의 글을 실고 있으며, 『少年世界』의 제1권 7·8호(1920.7·8) 역시 ‘婦女號’로서 많은 수의 글을 실고 있다. 이밖에도 『星期日』의 제33·34호(1920년 2.18·25)가 ‘婦女問題號’이고 『勞動與婦女』의 4호(1921.3.6)가 ‘男女同校 問題號’이며, 『星期評論』의 1922년 6월호가 ‘婦女運動號’이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여성문제 전문지를 중심으로 각각의 정치적 성향 및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의 폭과 깊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新婦女』는 1920년 1월 창간된 반월간으로서, 上海 務本女子中學의 교사 5명에 의해 발행되었다. 이 잡지의 성격은 「新婦女宣言」에 잘 나타나 있는 바, “1. 현 사회에서 여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사상·제도·풍속을 제거한다. 2. 신여성이 취해야 할 진행방법과 나아가야 할 길을 연구한다. 3. 여성에 관한 구미 각국의 사조를 선택·소개하여 신여성의 참고로 삼는다. 4. 현 사회의 갖가지 여성의 생활상태를 조사하여 개량의 준비로 삼는다<sup>20)</sup>”라고 주장하였다. 이 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잡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개량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新婦女』는 혼인의 자유·여성의 경제적 독립·남녀사교의 공개·남녀의 평등교육·여성참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당시의 많은 간행물 중에서도 내용이 비교적 충실한 편에 속하였다.

20) 女性問題를 다루었던 간행물은 五·四運動을 진후하여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920년까지 약 30여종의 간행물이 발간되었다고 한다. 雜誌名과 創刊時期 및 出版機關에 대해서는 中華全國婦女聯合會 編·박지훈 등 共譯, 앞의 책, pp.145~146 참조.

21) 「新婦女宣言」 第1卷 第1號.

『新婦女』에서는 우선적으로 남성중심주의의 봉건관념,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을 속박하는 ‘三從四德’ ‘賢母良妻主義’ 등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으며, 낡은 봉건관념이 구가족 제도의 형식을 통해 여성을 억압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구식의 가정은 군주전제와 같고”<sup>22)</sup> “家長의 권력은 전제마왕과 다를 바 없다”<sup>23)</sup>고 비판하였다. 구가족 제도와는 투쟁에서 중심적인 내용은 ‘혼인의 자유’의 쟁취였으며, 가장 많은 편폭을 할애한 것도 이 문제였다. 부모의 독단에 의한 강제혼인이나 매매혼 등의 봉건혼인제도에 대한 강력한 비판 외에도, 『新婦女』는 이혼의 절대자유, 여성의 재혼, 조혼의 금지, 결혼예식의 개량, 지참금제도의 폐지 등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적 독립,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남녀직업평등, 남녀의 평등교육 등에 대해서도 많은 글들이 게재되었는데, 경제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남성과 동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던 것이 兒童公育과 공동취사, 生計教育,<sup>24)</sup> 家庭俱樂部의 운영이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新婦女』는 이밖에도 소가족제도, 산아제한 등을 제창하기도 하였으며, 여성심리의 개혁, 즉 “시기, 괴팍함, 유전의 열근성”과 “편협함, 이기심의 심리”를 제거하고 “남성의 부속품이 되기를 스스로 원하는”<sup>25)</sup> 심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제창하기도 하였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와 여성문제를 논한 글도 실렸으며,<sup>26)</sup> 특히 주목할 만한 점으로 부르조아 여권운동과 프롤레타리아 여성해방운동의 차이를 분석한 글이 실리기도 하였다.<sup>27)</sup> 이 글

22) 「現在中國底家長」, 『新婦女』 第4卷 第6號.

23) 「新婦女與舊家庭」, 『新婦女』 第1卷 第2號.

24) “먼저 학교를 세워 안에 공장을 부설하고, 효과를 거둔 다음 각 무역항에 상점을 연다. 배움을 이루면 실행하고 잘 되어지면 상품을 판매한다.”(「女子生計教育的建議」, 『新婦女』 第2卷 第1號)

25) 「婦女心理的改革」, 『新婦女』 第1卷 第4號.

26) 「馬克斯學說和婦女問題」, 『新婦女』 第5卷 第1號.

에서는 여성운동이 단순히 男女平權을 추구하는 협소한 범위에서 벗어나 혁명적이고 실제적인 투쟁과 결합하여야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고, 수많은 여성을 해방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착취 받고 억압당하는 계급과 연합하여야만 인류의 평등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프롤레타리아 여성해방운동은 소수의 부르조아 여성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를 위해 복무하는 것이니 마땅히 여성노동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여성운동사에서 바라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 잡지에서는 그다지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勞動與婦女』는 1921년 2월 廣州에서 창간된 진보적 간행물로서, 沈玄廬, 陳獨秀, 譚平山 등이 편집을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이들이 廣東 및 上海의 공산주의소조의 성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광동공산주의소조에 의해 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잡지는 “계급제도 아래에서 경제적 압박을 당하는 것은 노동자와 여성이 마찬가지로”<sup>27)</sup>이며, 이러한 착취제도를 타도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각종 산업의 완전한 공유화와 노동자에 의한 국가정권의 장악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여성의 철저한 해방을 위해서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불평등한 계급제도를 소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잡지에 실린 글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여성문제에 대해 대체로 남녀평등과 경제적 독립이라는 관점에 머물러 있으며, 남성을 여성운동의 주요 공격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여성은 왜 해방되어야 하는가? 남성의 속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여성이 해방을 얻으려 한다면, (...중략...) 남성과 싸워야 한다”<sup>28)</sup>고 주장하며, 직업문제에 있어서도 “남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여성도 마땅히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 독립은 남녀평등을

27) 「我想」, 『新婦女』 第4卷 第4號.

28) 「發刊大義」, 『勞動與婦女』 第1期.

29) 「男子應當討論的婦女問題」, 第5期.

이루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남녀공학은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한계로 인해 교육받은 여성이 여전히 남성적 억압을 받는 문제에 대해 교육제도의 不良에서 그 원인을 찾았으며, 노동자의 문화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야학을 조직하고 도서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婦女聲』은 上海中華女界聯合會에서 발행한 반월간으로서 1921년 12월에 창간되었는데, 기고자가 대부분 陳獨秀·沈澤民·邵力子·李達 등의 공산당원이라는 점과 게재된 글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공산당이 上海中華女界聯合會의 명의로 발행하였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婦女聲』은 발간의 종지를 “지식여성들이 제4계급의 대오에 가입하여 여성운동에 종사하도록 불리일으키는 한편, 국내외의 각성된 자매들과 소식을 주고 받아 정신상의 연락을 꾀하는 것”<sup>30)</sup>이라 밝혔는 바, 지식계층의 여성들이 프롤레타리아 여성노동자와 결합하여 기존의 사회조직을 타파함으로써 여성해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잡지는 기존의 여성운동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에 대해, “일부 많은 자매들이 평소 늘상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발표하여 연애문제, 剪髮문제 및 복장문제를 떠들어대면서도, 여성의 이해에 절박한 문제에 관한 글은 도리어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급한 일을 체쳐두고 하찮은 일을 중히 여기는 짓이니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sup>31)</sup>고 비판하였다.

『婦女聲』에 게재된 글의 정치적 성향은 “(1) 자본주의의 발달은 여성의 열악한 환경의 발달과 평행하여 왔다. (2) 사회주의의 완성기는 곧 여성이 광명을 얻은 기념일이다”<sup>32)</sup>라는 주장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라 소련의 10월 사회주의혁명의 실례에 근거하여 여성노동자가 여성해방운동의 주체임을 강조하는 글이 게재되었다. 이 같은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하여 당시 진행되었던 여성참정권운동에 대해, 참정권 획득 이후 의회

30) 「通信」, 『婦女聲』 第5期.

31) 위와 같음.

32) 「社會主義與女子底命運」, 『婦女聲』 第7期.

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을 폭로함으로써 여성노동자의 계급적 각성을 일깨우고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시 여권운동의 축을 이루고 있던 기독교에 대해서도, 기독교가 부르조아와 결탁하여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할 뿐 아니라 제국주의의 문화침략의 선봉이 되고 있다는 점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婦女聲』은 국내외의 여성운동의 개황과 국내 각지의 여성노동자의 파업투쟁을 보도하였는데, 특히 혁명 이후의 소련여성의 삶에 대해 자세하고도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여성운동사에서 바라볼 때 『婦女聲』은 당시 여성운동의 총체적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문제에 대하여 여성운동의 당면 임무를 정확하게 지적해냈다고 할 수 있다.

『婦女評論』은 1921년 8월 上海民國日報의 副刊으로 창간되었다가 1923년 5월 중단되었으며, 편집인과 기고자는 대부분은 婦女評論社의 성원이었다. 이 잡지는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아래, “여성을 남성과 같은 지위로 끌어올리려는 그릇된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황당하고 가소로운 남녀평권 따위를 운위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성에게 가해진 갖가지 속박을 해방시켜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33)</sup>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 여성참정권, 혼인의 자유 등을 언급할 때에도, 남녀평권이나 개성해방의 차원을 뛰어넘어 사유재산제와 연결시켰으며, 사회주의사회만이 여성을 정치적·경제적으로 완전한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바, 이를 위해 세계의 모든 피압박여성 및 프롤레타리아와 공동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중지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잡지에 투고된 글들을 살펴보면 여성문제의 관건과 그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여성운동 관련 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독립만 이루어지면 무슨 문제든지 쉽게 해결”<sup>34)</sup>되며 “여성문제의 핵심은 직

33) 「婦女評論宣言」, 『婦女評論』 第1期.

34) 「讀了婦女雜誌'婦女運動號'以後」, 『婦女評論』 第82期.

업문제<sup>35)</sup>라고 여김으로써, 남자와 동등한 직업·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여성의 재산처리권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여성의 교육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여겨 남녀공학과 여성보습학교나 야학의 운영 등을 주장하기도 하고, 각지의 여성참정운동이 고조됨에 따라 여성참정운동을 제창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여성의 자유를 꾀하려면 반드시 연애의 자유부터 제창하여야 한다. 교육·정치·경제·도덕은 연애자유에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연애가 자유로워지면 여성문제 역시 해결된다”<sup>36)</sup>고 주장하는 연애지상주의파도 있었고, “빈부를 타파하려면 인구를 감소하는 길 밖에 없다”<sup>37)</sup>고 주장하는 산아제한파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성문제를 편면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문제’로 간주하여 “사회의 일체 악의 제도는 모두 못한 남성이 만들어냈다”<sup>38)</sup>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婦女評論』은 이와 같은 협애한 여권관념에 대해 비판함과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은 같은 계급의 남성들과 단결하여 자신의 절박한 이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sup>39)</sup>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을 중시할 것을 강조하여 “여권운동과 여성노동자의 운동은 상호 보조할 필요가 있다. (...중략...) 중류계급의 여성은 여성노동자의 운동을 보조하여야 한다. (...중략...) 여성노동자의 운동 또한 남성노동자의 운동과 적대해서는 안되며, 계급적 각성을 지니고서 남성노동단체와 함께 일치된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sup>40)</sup>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여성노동자의 생활실태 및 투쟁활동의 조사에 많은 편폭을 할애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婦女評論』은 여성해방을 위해 근본적인 사회제도의 개혁을 요구함으로써, 여성운동이 여권운동의 협소한 틀을 벗어나 변혁운동과 결합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35) 「女權運動史」, 『婦女評論』 第59期.

36) 「討論戀愛底兩封信以外」, 『婦女評論』 第58期.

37) 「婚姻問題和人口問題」, 『婦女評論』 第8期.

38) 「女子現今的地位怎樣」, 『婦女評論』 第24期.

39) 「怎樣去解決婦女問題」, 『婦女評論』 第4期.

40) 李達, 「現代的女權運動」, 『婦女評論』 第25期.



고 볼 수 있다.

『婦女周報』는 여성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국부녀문제연구회와 부녀평론사가 각각 발행하고 있던 『現代婦女』<sup>41)</sup>와 『婦女評論』을 합병한 것으로서, 1923년 8월 上海民國日報의 副刊으로서 창간되어 1926년 1월까지 간행되었다. 편집진은 합병전의 두 잡지의 편집인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당시 上海中央婦女部の 지도자 向警予 역시 편집에 참여하였다. 이 잡지는 “우리가 믿는 바의 주의로써 사회에 발생하는 사실을 비평한다”<sup>42)</sup>는 관점아래, 실제의 정치투쟁 및 노동운동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당시 여성운동의 방향과 임무를 제시하였다.

『婦女周報』는 창간된 지 얼마 후 여권운동의 그릇된 관점을 비판하여,<sup>43)</sup> “여성운동의 대상은 결코 남자가 아니라 사회제도”<sup>44)</sup>이며, “일체의 피압박계급의 남성과 손을 맞잡고 공동으로 현재의 경제제도를 타도”<sup>45)</sup>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참정운동·경제적 독립·직업개방 및 교육기회균등 등의 구호가 사회를 개조하고 여성을 해방하는 근본적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여성참정운동은 일부 유한계층 여성의 ‘관리가 되는(做官)’ 방편으로 전락함으로써 피압박여성의 권익의 쟁취라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났으며, 경제적 독립이나 직업과 교육의 기회균등 역시 ‘교육받을 능력도, 직업을 선택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엄혹한 경제제도 아래에서는 무의미한 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婦女周報』는 실제의 정치투쟁과 결합하여 공산당이 제창한 國民會議의 소집운동<sup>46)</sup>에 적극 참여하였다. 우선적으로 國民會議의 의의를

---

41) 『現代婦女』는 婦女問題研究會와 中華節育研究社가 공동으로 1922년 9월에 창간한 것으로서, 그 논지는 『婦女評論』과 대동소이하지만 사상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42) 「發刊辭」, 『婦女周報』 第1期.

43) 대표적인 글로 向警予의 「上海女權運動會今後應注意的三件事」와 「中國知識婦女的三派」, 楊之華의 「女同胞們快起來反對善後會議」 등을 들 수 있다.

44) 「女同胞們快起來反對善後會議」, 『婦女周報』 第65期.

45) 「女子解放與女權運動者的責任」, 『婦女周報』 第66期.

46) 中國共產黨은 1923년 8월 1일 「第二次對於時局之主張」과 1924년 11월 「第四次

밝히고 國民會議促成會의 설립을 도와 상해와 각지에서 女界國民會議促成會를 조직하는 한편, 全國國民會議促成會 總會에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각종 요구안을 제출하였다. 이 같은 투쟁속에서 ‘귀족식·교회식·겉치레식 여성단체’는 물론 女界促成會 역시 당시 여성운동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고, 전국적인 여성조직을 결성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후 각 대도시에서 婦女協會·婦女解放會·各界婦女聯合會 등의 조직이 결성되어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婦女周報』는 상해의 여성노동자의 투쟁상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여성해방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오직 가장 고통받는 생활을 하고 가장 절실하게 해방을 요구하며 해방의 정신과 박력이 가장 풍부한 대중을 찾아야만 한다. 이러한 대중이야말로 우리 여성운동의 진정한 기초”<sup>47)</sup>라고 밝혔다. 이처럼 노동대중과의 결합을 강조하는 한편, 전세계의 여성 및 노동대중과의 연계 또한 중시하였다. 10월 혁명 이후의 소련 여성, 특히 여성노동자의 삶을 소개하고, 나아가 “(제국주의국가내의) 수많은 여성노동자와 農婦는 우리 중국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갖가지 압박과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중국 여성의 갖가지 착취와 압박의 근원은 바로 열강의 제국주의자”라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여성문제를 전문적으로 제기하였던 잡지로 『婦女先鋒』과 『婦女之友』를 들 수 있다. 『婦女先鋒』은 1926년 3월 湖南의 長沙에서 창간된 월간으로서 湖南省 女界聯合會에서 간행하였는데, “국민혁명이 완성된 후에야 부녀해방, 남녀평권이 있게 되는” 바 “작금의 각성한 여성들은 국민혁명에 단결하여 참여하고, 여성해방의 조건을 모색하도록 할 것”<sup>48)</sup>을 사명으로 제창하고 있다. 『婦女之友』는 중국공산당 북방구위 부

---

對於時局之主張」을 통해 국민회의를 소집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할 것을 제창하였다. 이 주장은 段祺瑞정부가 제창한 善後會議에 맞서 각계의 호응을 얻어 각지에서 國民會議促成會가 설립되었으며, 1925년 3월 北京에서 國民會議促成會 전국대표대회가 열렸다.

47) 『婦女運動的基礎』, 『婦女周報』 第81期.

48) 『發刊辭』, 『婦女先鋒』 第1期.

녀부가 북경국민당좌파와 연합하여 1926년 9월 창간한 발원간으로서, “여성해방은 결코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시대적 역사사명”이며, 따라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형제, 그리고 전세계의 피압박민중과 연합하여야 한다”<sup>49)</sup>고 천명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五·四運動 이후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는 잡지들은 상이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채 다양한 여성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잡지라 할지라도 변혁운동의 임무와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잡지의 성격이 점차 바뀌는 경우도 있다. 우선적으로 이들 잡지에서 보여지는 여성운동의 성격을 살펴보면, 크게 개량주의적 여권운동과 혁명적 여성해방운동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가 부르조아 지식여성이 중심이 되어 남성과 동등한 권익을 요구하였음에 반해, 후자는 프롤레타리아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체제의 변화를 통해 여성 억압적 사회구조로부터의 해방을 쟁취하고자 하였다. 대체로 五·四運動 직후에 쓰여진 글에서는 전자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였던 반면, 1922·3년에 들어서서 후자와 관련된 논의가 증가하였다. 이는 변혁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변혁운동의 성격이 보다 명확해지고, 아울러 여성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이 보다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성문제가 계급문제의 해결과 점차 통합되어 가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잡지의 출판성격, 출판지 및 편집진 혹은 기고자를 살펴보자. 五·四運動 이전 혹은 직후에 출판된 잡지는 종합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北京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남성 필진을 중심으로 간행되었다. 반면 1921년 전후에 출판된 잡지는 여성문제 전문지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上海와 廣州를 중심으로 여성 필진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는 사회문제의 일부로서 제기되었던 여성문제가 점차 독립적인 분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上海에 공산당중앙이 설립되고 廣州가 북벌전쟁의 거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문제가 점차 변혁운

49) 「發刊辭」, 『婦女之友』 第1期.

동과 결합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며, 여성문제 전문가의 배양과 등장에 힘입어 여성 자신의 시각에서 여성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 4. 여성운동과 여성소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여성문제는 五·四新文化運動 이후 줄곧 사회문제의 주요한 일부로서 다루어져 왔으며, 그 해결 역시 변혁운동의 주요한 과제로 여겨져 왔다. 1920년대에 여성작가들이 대거 문단에 등장하였던 것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여성문제의 사회화과정 및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각기 상이한 성장과정과 인생체험을 거쳤지만, 변혁운동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五·四’라는 독특한 시대의 딸들이고, 大變革의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여성작가의 소설 중에는 대체로 작가 자신의 삶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을 형상화한 작품이 많다. 20세를 전후하여 소설 창작에 임하였던 이들에게 있어서, 당시 제기되었던 수많은 사회문제는 바로 작가 자신 혹은 주변 인물의 삶에서도 절실한 문제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혹은 주변에서 제재를 취하는 것이 창작과정에서 가장 손쉬웠기 때문이다. 1920년대 女性小説은 작품의 제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연애와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을 들 수 있는데, 女性小説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로는 결혼생활의 갈등과 좌절 및 구가족 제도의 문제를 그리고 있는 작품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여성교육 문제와 여성의 사회활동을 다루고 있는 작품을 들 수 있다.

중국여성을 억압해온 봉건이데올로기 가운데에서 여성의 인간다움을 가장 철저하고 심각하게 파괴하였던 것은 봉건적 혼인제도라고 할 수 있

다. 여성이 남성의 부속물 혹은 성적인 대상으로만 존재해온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혼인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봉건적 혼인제도는 혼인이란 애정을 토대로 한 남녀의 자유로운 결합이라기보다는, 후사를 이어 가계를 전승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회적인 통념, 그리고 남녀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나 집안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봉건관념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辛亥革命 이후 「중화민국 민법 친족편 초안(中華民國律親屬編草案)」 1388條에서는 “결혼은 부모의 허락을 거쳐야 한다. 만약 繼母나 嫡母가 고의로 결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자녀는 親族會의 동의를 얻어 결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1341條에서는 “당사자가 결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부모가 강요한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라고 명시하였지만, 전통적인 봉건관념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조문에 지나지 않았다. 五·四運動 직후 봉건적 혼인제도에 반발하여 자살하거나 도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일례로 1919년 11월 長沙의 趙五貞은 부모가 결혼을 강요하자 시집가는 꽃가마 안에서 면도칼로 목을 찔러 자살하였으며, 1920년 봄 長沙의 李欣淑은 정혼자가 죽어 수절을 강요당하고 다시 부잣집으로의 결혼을 강요당하자 이에 반대하여 도망쳤던 것이다.

이 같은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1920년대의 여성작가들은 봉건적 혼인제도로 인해 좌절과 절망 속에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당하거나 죽음을 선택하는 여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부모의 독단에 의한 강제혼인이 빚어낸 비극은 특히 여성작가들이 즐겨 취하였던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바, 강제혼인으로 인해 여성형상은 자신의 희망을 포기한 채 좌절 속에 지내거나 혹은 집으로부터 도망치며 심지어는 자살을 결심하거나 실행하기도 한다.<sup>50)</sup> 강제혼인 외에 賣買婚과 早婚 등의 봉건적 혼인제도도 형상화되었는데, 채무를 갚기 위해 부호의 첩으로 팔려가거나 혹은

50) 이러한 예의 작품으로는 氷心の 「秋風秋雨愁煞人」, 廬隱의 「一個著作家」와 「藍田的懺悔錄」, 馮沅君的 「隔絶」과 「隔絶之後」를 들 수 있다.

민머느리로 들어갔다 본처 혹은 시어머니의 학대를 받아 숨지기도 하였다.<sup>51)</sup>

이러한 봉건적 혼인제도로 인해 빚어지는 비극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혼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신해혁명 이후 제정된 법률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적이거나 규정하였지만, 1920년대 초에는 이 같은 이혼의 자유마저 ‘司法府制限離婚’이라는 법령에 의해 상당부분 제한함으로써 이혼은 한층 어려워졌다. 실제로 애정없는 혼인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남편을 살해하거나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sup>52)</sup> 이 때문에 五·四運動 이후 강제 혼인 등으로 말미암은 여성의 불행을 구제하기 위해 이혼의 자유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이 토론에서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과 함께,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남성의 무리한 이혼요구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략 90%인데, 자신의 아내가 신지식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1920년대 여성소설 역시 이혼문제, 특히 남성의 이혼요구로 인해 빚어지는 여성의 비극적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신교육을 받은 남편은 온갖 어려움을 헤치며 집안을 꾸려온 아내를 속여 이혼한 후 부유하고 아름다운 신여성을 맞아들인다.<sup>53)</sup> 남편의 비열함으로 인해 아내는 지금까지의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상실하고 만다. 한편으로 설사 법률에 따라 이혼할 수 있더라도 이혼녀에 대한 부정적인 전통관념과 재혼의 어려움,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 이혼은 대부분의 여성에게 있어서 사형선고와 다

---

51) 이러한 예의 작품으로는 廬隱의 「一封信」과 氷心の 「最後的安息」 등을 들 수 있다.

52) 1925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된 사형집행자 중 아내를 살해하거나 남편을 살해한 죄목으로 사형당한 자가 전체의 40%에 이르고 있다.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上海: 上海商務印書館, 1928), p.409 참조

53) 이러한 예의 작품으로는 石評梅의 「棄婦」, 廬隱의 「時代的犧牲者」 등을 들 수 있다.

름없는 것이었다. 여성작가들은 남편의 바람기나 학대로 인해 이혼하고 싶어하지만 이혼후의 삶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 혹은 자식에 대한 모성으로 인해, 애정 없는 혼인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여성의 심리적 갈등을 그려내고 있다.<sup>54)</sup>

여성들은 봉건적 혼인제도로 인해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구조적인 불평등과 억압을 강요받아 왔다. 남성은 우주창조의 근원으로서 하늘에 비유되고 고귀함과 우월성, 적극성, 활동성을 나타내는 반면, 여성은 땅에 비유되고 비천함과 열등성, 소극성, 순종성을 상징한다고 여겨졌다. 이로 인해 孝와 忠, 貞과 節이라는 미명 아래 무조건적인 순종과 無才가 여성의 최대의 미덕으로 간주되었다. 남성중심사상은 가족제도와 사회규범에 있어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남존여비의 도덕관념과 여성의 성을 극도로 억압하는 정절문화, 그리고 낡은 가족제도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은 자아실현의 기회는 물론 자아각성의 계기마저 철저히 부정당하였으며, 남성중심사상의 폭력이 빚어내는 오류, 즉 남성주의적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남성주의적 오류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여성의 정절만을 강요함으로써 빚어지는 비극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1920년대 여성작가들은 여성을 성적인 대상이나 놀이개로 여기는 남성의 속물근성과 천박함을 폭로하고, 그들의 성적 욕망에 의해 희생당하는 여성의 비참한 운명이나 심리적 고통을 자주 형상화하고 있다.<sup>55)</sup> 또한 여성의 정조문제를 다룬 작품 중에는 육체적 순결은 물론 정신적 순결까지도 강요당하는 여성형상<sup>56)</sup>뿐만 아니라, 낡은 정절문화에 젖어 정조관념에 내포된 남성중심적 봉건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여성형상<sup>57)</sup> 또한 그려져 있다. 여성의 정

54) 이러한 예의 작품으로는 盧隱의 「父親」과 石評梅의 「林楠의日記」를 들 수 있다.

55) 이러한 예의 작품으로는 盧隱의 「藍田의懺悔錄」과 「岐路」, 丁玲의 「夢珂」, 「莎菲女士의日記」 등을 들 수 있다.

56) 이러한 예의 작품으로는 盧隱의 「淪落」을 들 수 있다.

조에 대한 엄격한 요구와는 정반대로 남성의 축첩은 묵인되거나 당연시 되었는데, 여성작가들은 남편의 축첩에 의해 고통받는 아내를 그려내거나 혹은 남편의 축첩행위를 오히려 사랑으로 여기는 아내의 무지와 허영심을 그려냈다.<sup>57)</sup>

남성중심주의의 폭력과 오류가 행해지는 구체적인 현장은 가정이며,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구가족 제도의 엄격한 위계질서이다. 구가족 제도하의 부부관계에서 여성은 남편의 절대권력은 무조건 복종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잡다한 가사노동에 자신의 능력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20년대 여성작가들이 집요하게 다루었던 것은 바로 가정의 일상사에 찌들어버린 채 삶의 무의미와 무력감을 곱씹는 여성형상이었다.<sup>58)</sup> 이들 여성은 학창시절의 쾌활함과 희망을 접어두고서 가정에 안주하고 가사에만 몰두하도록 강요받는다. 구가족 제도의 구조적인 억압은 때로 여성에게 시부모, 특히 시어머니에 의한 인격적 억압으로 체현되기도 한다.<sup>59)</sup> 여성작가들의 시선은 남편과 아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존재하는 지배와 피지배,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가 아내이자 며느리로서의 여성의 삶을 비인간화하는 데에 모아져 있다.

이처럼 전제적인 구가족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개조하지 않으면 안되며, 가정의 개조를 위해서는 여성교육이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여성교육의 필요성은 여권운동이 맹위를 떨치던 19세기말 이래 五·四運動期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남녀교육의 평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만큼이나 여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분위기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전통관념에 젖어온 구세대의 보수적인 사고방식에

57) 이러한 예의 작품으로는 馮沅君의 「貞婦」, 石評梅의 「一夜」 등을 들 수 있다.

58) 전자의 경우로는 廬隱의 「秦教授的失敗」를, 후자의 경우로는 凌叔華의 「有福氣的人」을 들 수 있다.

59) 이러한 예의 작품으로는 廬隱의 「何處是歸程」, 凌叔華의 「小劉」 등을 들 수 있다.

60) 이러한 예의 작품으로는 陳衡哲의 「巫峽裏的一個女子」, 石評梅의 「董二嫂」, 馮沅君의 「潛悼」, 凌叔華의 「小英」 등을 들 수 있다.



기인하지만, 당시 일부 교육받은 여성들이 보여준 부정적 이미지 역시 사회여론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작가의 작품 속에 그대로 반영되었는 바, ‘재주 없음이 덕(無才便是德)’이라는 고루한 관념에 의해 여성교육에 대한 인식부채를 드러내는 한편, 여성교육이 여학생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보여주기도 한다.<sup>61)</sup> 여성들은 이 같은 보수적인 사회여론과 사고체계에 의해 교육받을 기회를 상실하기도 하지만, 남존여비의 봉건관념이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교육받을 기회를 포기하거나 박탈당하기도 하였다. 당시의 여성들이 설사 교육받을 기회를 가졌다 할지라도, 가정상황의 변화에 따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던 것이다.<sup>62)</sup>

賢母良妻의 양성을 여학교의 설립목적으로 삼았던 維新時代 이래, 여성교육의 필요성 및 남녀교육의 평등에 대한 제창은 주로 가정개조를 위한 新賢母良妻의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남편이 사회생활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할 수 있는 아내와 가정이 여성작가들이 그려내는 이상적인 모델이기도 하였다.<sup>63)</sup> 한편 당시 여성운동계에서는 가정개조를 위해 여성이 지니고 있는 미신관념을 타파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여성심리 개조관 역시 미신관념에 의해 가정을 파멸로 이끄는 여성형상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였다.<sup>64)</sup> 가정개조를 위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들 작품은 당시의 여성교육에 대한 여성계의 관심과 한계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작가 자신의 편협한 시야를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1) 진자의 경우로 廬隱의 「前塵」과 凌叔華의 「送車」를, 후자의 경우로 氷心の 「是誰斷送了你?」와 凌叔華의 「寫信」, 馮沅君的 「誤點」 등을 들 수 있다.

62) 이러한 예의 작품으로는 氷心の 「莊鴻的姉姊」, 廬隱의 「靈魂可以賣嗎?」 등을 들 수 있다.

63) 이러한 예의 작품으로는 氷心の 「兩個家庭」, 凌叔華의 「太太」를 들 수 있다.

64) 이러한 예의 작품으로는 凌叔華의 「中秋晚」을 들 수 있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오사신문화운동기로부터 대혁명기에 이르기까지 여성운동의 흐름과 여성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었던 매체, 그리고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아편전쟁 이후 외부의 강요에 의해 세계자본주의의 질서 속으로 편입되는 가운데 중국의 여성운동이 싹텄다면, 이 시기의 여성운동은 유신운동과 신해혁명을 거치면서 쌓아온 성과 위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여성운동은 대체로 정치·경제·사회문화면에서의 여성의 권익을 쟁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여성노동자와의 연대를 모색하였는데, 1920년대 여성작가의 대거등단은 바로 이 같은 여성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가능하였다. 다시 말해 여성문제가 사회문제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제기되고 여성이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하여 가는 사회현상이, 여성작가들이 문단에 출현할 수 있는 문화 심리적 토대를 마련해주었던 것이다.

1920년대 여성작가의 작품에는 당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던 여성문제가 거의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아울러 작품 속에 드러나는 여성문제의 폭과 깊이 역시 당시의 여성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즉 당시의 여성운동이 여성노동자를 비롯한 기층여성과 일정 정도 유리되었듯이, 작품내의 여성형상 역시 대부분 지식여성에 한정되어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여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당시의 여성운동이 계급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지 못하였듯이, 작품 가운데 일부 남성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거나 이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당시 여성운동이 한때 남성을 여성 억압의 근원으로 지목하여 투쟁대상으로 삼았듯이, 일부 작품은 남성주의적 오류를 형상화할 때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기계적으로 취함으로써 남성 역시 봉건 이데올로기의 희생물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참고문헌

- 金時俊, 『中國現代文學史』, 지식산업사, 1992.
- 楊 義, 『中國現代小說史 1·2·3』,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6·1988·1991.
- 趙遐秋·曾慶瑞, 『中國現代小說史 上·下』,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4·1985.
- 田仲濟·孫昌熙 主編, 『中國現代小說史』, 濟南: 山東文藝出版社, 1984.
- 趙 園, 『艱難全選擇』,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6.
- 楊 義, 『文化衝突與心理選擇』,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8.
- 陳素琰, 『文學廣角的女性視野』, 廣州: 花城出版社, 1988.
-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 上海: 上海商務印書館, 1928.
- 呂美頤·鄭永福, 『中國婦女運動(1840~1921)』, 河南: 河南人民出版社, 1990.
- 中華全國婦女聯合會 編, 박지훈 등 공역, 『中國女性運動史 上』, 한국여성개발원, 1991.
- 한국여성연구회 문학분과 편역, 『여성해방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90.
- 李效再 譯, 『女性解放의 理論과 現實』, 창작과비평사, 1979.
- 한국여성연구회, 『여성학강의』, 동녘, 1991.
- 원용진 외 譯, 『대중매체와 페미니즘』, 한나래, 1993.
- 中華全國婦女聯合會 婦女運動歷史研究室 編, 『中國婦女運動歷史資料(1921~1927)』, 北京: 人民出版社, 1986.
- 劉巨才 編著, 『中國近代婦女運動史』, 北京: 中國婦女出版社, 1989.
- 中華全國婦女聯合會 婦女運動歷史研究室 編, 『中國近代婦女運動歷史資料(1840~1918)』, 北京: 中國婦女出版社, 1991.
- 中華全國婦女聯合會 婦女運動歷史研究室 編, 『五四時期婦女問題文選』, 北京: 中國婦女出版社, 1981.

## Abstract

# The Feminine Literature and Mass Media of China in the 1920s

Kim, Eun-Hee

The woman's liberation movement of China in the 1920s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historical achievements since the Opium War. The woman's liberation movement in this period tried to find a solidarity with women labors, focusing on the obtainment of woman's rights and interests in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ocultural field. A considerable number of women writers appeared in the literary world nearly at the same time. This was due to the achievements of the woman's liberation movement. Magazines that dealt with woman's problems posed various issues, taking on different political inclinations. The character of the magazines may be largely divided into two of the reform of woman's rights and the revolutionary feminism. The reform of woman's rights, in which intellectual bourgeois women played a most active role, required the woman's rights and interests equal to men's. On the other hand, the revolutionary feminism, in which the proletarian women labors had the initiative, tried to acquire liberation from the restrictive social structure that had kept women in bondage. Generally speaking, writings immediately after the Wu Si movement, dealt with the issues related to the reform of woman's rights : those written since 1922.3, in the other hand, the issues related to the revolutionary feminism. This will be because the character of Chinese revolution and the class identity in the woman's liberation movement became clearer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Chinese revolution.

In addition, magazines published before and after the Wu Si movement, possessed the characteristics of a general magazine and a great part of their contributors were men of a large city like Beijing or Shanghai and etc. In contrast, magazines published before and after 1921, possessed the characteristics of a technical magazine devoted to woman's problems and their contributors were mostly women in Shanghai and Guangzhou. This shows that woman's problems as a part of social problems gradually grew into an independent area and combined with a revolutionary movement.

